

불턱에서 배우는 나눔의 정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녀들에게 불턱은 일터이자 휴식처였다. 그녀들은 이곳에서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챙겼다. 불턱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던 해녀들의 나눔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동북로 |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1648-1 ~ 구좌읍 동북리 695-3(약 1.5km)

구좌해안로 |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718-1 ~ 구좌읍 김녕리 4320(약 2.6km)

동북로 | 해녀들의 불턱

구좌읍에 들어서면 일주동로에서 갈라진 **동북로**가 나온다. 이 길은 동북리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동쪽의 북 받을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곳의 옛 이름은 ‘골막’이라고 한다. 옛날 어떤 노인이 마을에 들어와 오막살이를 짓고 살았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조천읍과 구좌읍의 경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동북은 예로부터 ‘새의 다리 하나로도 마을 잔치를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마을 인심이 좋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흉년으로 고생하는 제주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아 구휼하였다는 김만덕이 태어난 곳이 동북이라고 하니 김만덕의 나눔의 정신을 마을 사람들이 오래도록 지켜왔는지도 모른다.



불턱

바다를 끼고 있는 다른 마을과 같이 동북도 해녀들이 많았다.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물질을 준비하는 곳을 불턱이라고 한다. 돌을 쌓아 만든 것도 있고,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불턱들도 있었다. 평평한 곳에 바람을 막아주는 커다란 바위가 세워져 있는 곳이나 주변 지형보다 움푹 들어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불턱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바닷속에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해야하는 해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닷속의 정보였다. 그래서 불턱에서 해산물은 어느 곳에 많은지, 언제 물질을 하는 것이 좋은지,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교류했다. 이 밖에도 불턱은 물에 들어가서 차가워진 몸을 녹이는 공간이자, 이야기를 나누며 쌓였던 피로를 푸는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다. 오늘날은 예전만큼 사용되지 않지만 불턱의 정신은 지금도 해녀들 사이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구좌해안로 | 동북관광체험장

동북로와 이어지는 **구좌해안로**는 동북리에서 김녕리 바닷가를 연결한다. 이 길에는 동



환해장성

복리관광체험어장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마을의 경우 어장 보호를 위해 보통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많다. 이곳에서는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해녀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해산물을 맛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체험어장 옆에는 왜적에게서 제주를 지키기 위해 세운 환해장성의 흔적도 만날 수 있다.

